

육계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 발전적 방안 모색 찾아야

WTO, FTA 등 시장개방압력으로 인해 우리 농축산물이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사육환경에 대한 각종 제재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료작물의 영향 등으로 많은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양계산업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닭고기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게다가 매년 우리 양계농가를 괴롭히고 있는 AI까지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생산자 스스로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의무자조금사업의 시행이라고 생각한다.

의무자조금이란 개개인의 생산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생산자 수익금의 0.5%)내에서 생산자 모두가 동참하여 거둔 자조금에 농가가 모은 자조금에 대한 100% 정부 보조금이 더해져 소비홍보,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활동에 쓰여지는 기금을 말한다.

우리 육계사육농가도 이러한 자조금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2004년부터 강력하게 육계의 무자조금사업의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



장 재 성  
육계분과위원장

나 육계자조금은 공동준비단체가 세 단체라는 점, 농가 대부분이 계열화 업체의 위탁사육농가라는 점, 그리고 재래닭·삼계·육용종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자조금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 타 축종에 비해 유달리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작하였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은 오랜 합의기간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이 되었고,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며 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염원은 그 어느때보다 강해졌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해결되었음에도 의견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육계자조금은 2005년 12월에 실시된 제1차 육계자조금대의원회가 유회되면서 업계 안팎에서 각종 억측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농가의 자조금, 농가를 위한 자조금이 마치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양 해괴한 소문들이 끊이지 않았고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농가도 자조금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만 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은 각종 크고 작은 사안들이 모두 자조금대의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매우 민주적인 제도이다. 육계자조금대의원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번지고 있는 각종 소문들은 그야말로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의원회에서는 특정단체나 특정산업을 위해 자조금이 쓰여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게 될 것이다.

육계의무자조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농가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의 기능을 전적으로 믿고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이 대의원총회가 무리없이 끝남에 따라 그 성공적인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조성한 기금이며 또한 시장개방에 따른 각종 산업피해로부터 우리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인 자조금을 잘 활용하여 우리 농가가 활짝 웃을 날을 기대해 보겠다. **양계**

## 제14회 전국육계인대회 개최 안내

육계산업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육계인 단합을 목적으로 제14회 전국육계인 대회가 6월 1일(오후 2시)부터 2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개최됩니다.

본 육계인대회는 첫째날 육계 생산성향상 세미나와 육계인의 밤 행사 등을 통해 육계인들의 화합을 도모코자 하며, 둘째날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고성 공룡EXPO 관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육계인과 육계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자조금사업팀 02-588-7651)